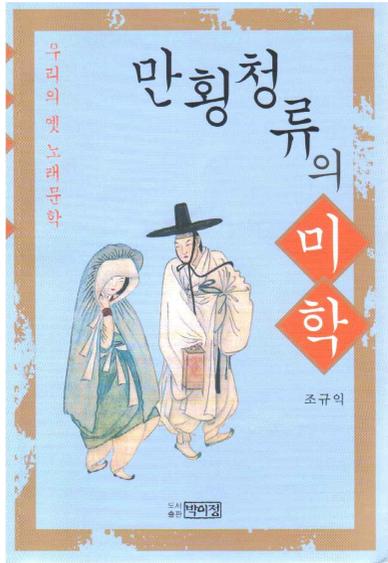


옛 노래문학의 寶庫 ‘만황청류’의 모든 것을 밝힌 역작.

조규익. 『만황청류의 미학』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9.

문 속 희



우리에게는 궁중음악 혹은 민요,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등등 많은 장르의 많은 옛노래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옛노래들의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문득문득 가사의 정서에 흠뻑 빠져들 때가 있다. 가사 속에 담겨 있는 표현의 아름다움과 기발함, 순수함, 그리고 솔직함을 통해 옛 선조들의 정서를 조금 이나마 맛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옛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극히 일부분에 속한다. 그것은 노래들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이나 의미 등을 잘 알지 못하고, 더욱이 가사의 의미 자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대적 배경과 그 노래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또 창자의 의도와 가사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노래에 담긴 가사의 정서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황청류의 미학』이란 어떤 책인가?

조규익의 『만황청류의 미학』은 13년전 『우리의 옛 노래문학 만황청류』(박이정, 1996)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재판한 것으로서, 만황청류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대부분 해결해주는 책이다. 만황청류란 김천택이 편찬한 『진본 청구영언』의 끝부분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 곡들로서 가곡의 범주에 드는 곡들이다. 만황청류에는 116곡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의 곡들은 남녀 관계를 엄격하게 통제한 조선시대의 노래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남녀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가 민요나 잡가와 같은 민속악으로 불리지 않고 가곡으로 불려졌다는 점은 오늘날의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한다. 김천택은 같은 책의 앞부분에 수록한 수많은 다른 곡들과는 성격이 다른 이 만황청류를 많은 고민을 하며 당대의 지식인인 마악노초(磨嶽老樵)의 지원까지 힘입어 가며 자신의 변명과 함께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그는 만황청류에 대한 의미나 배경, 지은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책에 수록된 다른 곡들과의 변별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저자는 이 곡들이 어떤 곡들이기에 김천택이 그토록 고민하면서도 꼭 수록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노래들이 갖고 있는 변별점이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그것을 통해 이 노래들의 음악적인 면, 유래, 사회적인 면, 문학적인 면 등 이 노래에 관련된 전모를 여러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밝혀 놓았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제1부 문학적 성격, 제2부 작품론, 제3부 기본자료로 나뉘어 있는데, 제1부는 만황청류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 문학적 성격을 살펴본 것이고, 제2부는 만황청류의 개별적인 작품을 문학적으로 살펴본 것이며, 제3부는 만황청류의 원자료를 해석과 함께 붙여 놓은 것이다. 제1

부에서는 만횡청류의 전체적인 문학적 성격을 만횡청류의 의미, 김천택과 만횡청류, 내용적 성격, 미의식, 표현기법과 이념, 시어, 담당층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2부에서는 개별 작품의 성격을 호주가, 간부가, 소외자들의 노래, 불굴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독자들이 만횡청류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원문을 현대어로 풀이해 놓았고, 또 전체 한국시가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노래에 사용된 시어와 그 용례들을 사전식으로 색인하여 덧붙여 놓았다.

만횡청류의 음악적인 면

만횡청류의 음악적인 면은 제1부 제II장의 ‘만횡의 의미와 그 유래’, ‘곡조로서의 만횡과 청(淸), 청가(淸歌)’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청구영언』에는 몇 가지의 판본이 있는데, 유독 『진본 청구영언』에만 만횡청류가 있다. 『진본 청구영언』에는 많은 노래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각 분류의 제목은 초중대엽, 이중대엽, 삼중대엽, 북전, 이북전,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낙시조, **만횡청류** 등과 같이 곡조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곡조 이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만횡청류는 중대엽, 삭대엽, 북전 등과 같은 곡조이름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대의 『해동가요』 또는 『가곡원류』에는 만횡청류라는 제목은 없고 만횡청류에 속해 있던 일부의 곡만 ‘만횡(蔓橫)’이나 ‘언롱(言弄)’의 항에 실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만횡청류가 과연 어떤 곡조일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문학적으로 살펴보고 또 음악적으로도 살펴보았다. 그는 만횡청류를 ‘만횡’과 ‘청’의 성격을 가진 노래의 부류(部類)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중 ‘만횡’은 『가곡원류』의 기록을 통해 앞부분은 삼삭대엽으로 부르고 뒷부분은 농(弄)으로 부르는 ‘언농’과 같은 곡조로 보았다. 그리고 ‘청’은 목청, 기본음보다 한 옥타브 올려 부르는 곡조, 창자(唱子)의 음역 등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저자는 만횡청류의 ‘청’을 내용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래 ‘청가(淸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만횡청류

를 언롱으로 불리던 방탕한 노래 청가(淸歌)의 한 부류로 보았다.

악보 없이 가사와 단편적인 기록만을 가지고 음악적인 내용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를 얻었다. 음악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곡원류』에 기록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의 한계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가 풀지 못한 나머지 음악적인 부분은 음악전공자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만횡청류의 유래

만횡청류의 유래는 제1부 제II장의 ‘만횡청류의 전개와 표면화’에서 다루고 있다. 김천택은 만횡청류의 유래에 대해 단지 오래된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만횡청류의 노래들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언제부터 문헌에 정착되었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채 민간에서 구전되어온 노래들의 유래를 찾는다는 것은 구름잡는 일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저자는 이 노래들이 올려져 가창된 곡조의 출현이나 그 유행 시기를 통해 찾아보았다. 그는 만횡청류를 ‘삼삭대엽과 농을 결합, 새롭게 만든 만횡의 목청으로 부르는 노랫말들’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가곡의 형성시기를 먼저 살펴본 다음 가곡의 지류인 만횡청류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만횡청류는 이전에 불리고 있던 여러 갈래의 노래 곡조들이 합쳐지고 수정되어 새롭게 집대성되었거나 출현된 장르이고, 그 과정에 김천택을 통해 기록됨으로써 문헌에 등장하며 표면화된 것으로 보았다.

만횡청류의 사회적인 면

만횡청류의 사회적인 면은 제1부 제II장의 ‘김천택과 만횡청류’에 잘 나타나 있다. ‘김천택과 만횡청류’에서는 대부분 남녀간의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노래들로 되어 있는 만황청류를 김천택이 왜 실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만황청류를 둘러싼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만황청류의 원류로 볼 수 있는 가곡의 사회적인 배경들을 볼 수 있다. 이 노래가 불렸을 당시 조선사회는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금기시 하던 사회였다. 따라서 사회의 전면에서 사랑을 받으며 널리 애창되었던 곡들은 만황청류를 제외한 다른 가곡이었고, 남녀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만황청류의 노래들은 음탕하고 뜻과 지취가 보잘것 없다는 평을 받으며 사회의 저변에서 불리졌다. 김천택은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을 물리치고 이 노래들을 자신의 책에 수록하여 표면화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사회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 노래들을 ‘자연의 진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인위적인 세련성이나 도덕적인 아정함 보다는 꾸밈없는 모습과 태도를 중시하여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표현한 자연스러움을 이 노래들의 미로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노래들을 자신의 책에서 빼지 못하고 수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황청류의 문학적인 면

만황청류의 문학적인 면이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볼 때 저자는 만황청류의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황청류의 문학적인 면은 제1부의 후반부로부터 시작하는데, 제1부에서는 만황청류를 전체적으로 놓고 먼저 내용적인 성격을 살펴본 다음 만황청류의 문학적인 미의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만황청류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이념, 만황청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어(詩語), 만황청류의 담당층 등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만황청류의 내용적인 성격은 크게 삶의 체험을 노래한 삶의 노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자연의 노래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삶의 노래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즐거움의 노래에 속한 것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만황청류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마음에 맺힌 고통이나 소망 그

리고 한을 역동적인 웃음으로 풀어 나가는 골계미로 들고 있다.

제2부 작품론은 만황청류의 개별 작품을 문학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16곡이나 되는 만황청류의 곡을 개별적으로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뚜렷한 성격을 드러내는 곡들만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만황청류에서 성격이 뚜렷히 드러나는 것은 호주가(呼主歌), 간부가(姦婦歌), 소외자들의 노래, 불굴가(不屈歌) 등이다. 호주가란 화자가 사모하는 사람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노래를 말한다. 이때 사모하는 사람이란 좁은 의미로서 연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서 신하가 임금,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를, 후배가 선배를, 후대인이 선대의 모범적 왕조나 이념을 숭양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만황청류의 호주가에서는 화자의 대상인 ‘임’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상과 신하가 바라보는 임금이 통합된 개념을 나타내며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황청류에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간통을 노래한 것이 몇 수 있는데, 이를 간부가라고 하였다. 이 노래들이 불리던 조선조는 남녀의 관계가 엄격히 구분되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노래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최대한 설명하면서, 간통을 통해 화자가 가졌을 행복의 정도로써 이 노래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노래의 구조 및 내용, 미학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편 만황청류에는 전통사회에서 소외계층에 속해있던 떠돌이와 상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이를 소외자의 노래라고 하였다. 저자는 이 노래들의 내용, 가창 의도 및 미학 등을 각각 살펴보았다. 만황청류 중에는 고려말의 대은 변안렬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불굴가가 있다. 이 노래는 당시 혁명을 일으키려는 이성계의 뜻에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불굴가에 대해 저자는 기왕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불굴가의 작자와 전승과정 그리고 음악적 위치와 특성, 시적 의미와 주제, 제의성과 유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만황청류의 미학

만황청류는 청구영언의 끝에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과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세력을 확보하여 안정된 자리에 앉아 있는 앞부분의 노래들과는 달리, 뒷부분의 낮은 곳에 앉아 있는 만황청류의 노래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저항하고 있다. 사회적인 약자의 자리에 앉아 실제로는 저항할 수 없는 세력들에 대해 노래로써 저항하고 있는데, 그 저항의 방법은 잔인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한민족 특유의 기지인 골계미를 발휘하여 삶의 애환과 고통 소망을 기발하게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만황청류의 미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자칫 문혀 버릴 수 있는 그 만황청류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실로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옛노래의 한 장르를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러한 연구는 만황청류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숙희 sukhiem@hotmail.com